

# ESSD를 위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의 중요성

노재식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이번 회의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 아동·인구·개발 의원연맹”과 아시아재단 그리고 UNDP 여러분의 환경보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수년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 시대의 이념대립이 사라지면서 “환경주의”의 새물결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이 파괴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위기가 계속된다면 개발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복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논리가 유린한 다음에야 파괴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뒤따르는 식의 구시대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경제논리와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상호보안적이라고 생각하는 새 세계관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산 소비패턴을 좀더 지탱가능한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의 이념과 양립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의 개편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요즈음 세계적으로 “지탱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에서 내린 정의에 의하면 “지탱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개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며 특히 기존의 자연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중심적인 관계관

에서 탈피하여 유한한 에너지와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20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개발”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뿐인 우리들의 지구를 구제하고 지탱가능한 개발을 하기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국제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의 지속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국가들간의 협력이 없다면 우주선 지구호의 멸망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개발에 대하여 말하자면 앞으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이 개발의 세계적 중심이 될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경제적 발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 동구권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정치·경제적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4만세기, 나아가서는 수십년간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이 국제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 지역으로의 국제경제중심의 이동은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은 역사 및 문화에 있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준도 다양합니다. 이 지역에는 고도로 성장한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 또한 다양합니다. 이처럼 주어진 여건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위기에 맞서기 위한 협력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에는 정치적, 국가적인 국경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지난해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21세기

를 위한 행동강령인 “의제21”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의제21의 제38장은 그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변화의 씨는 리우에서 심어졌지만 그 성공여부는 바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결정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의 국민들은 여러가지 견해차이를 극복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성장을 병행하는 새로운 개발전략이 실현가능한 것임을 입증해 줄 것 입니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환경과피로 인한 위기와 위협의 징후들은 매우 많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는 산업발전과 에너지 소비에 따른 대기오염입니다.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몇몇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고 있습니다. 산성비는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업국가인 북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공업국인 일본은 이미 대기오염문제에 있어서도 선진국입니다. 일본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대기오염 저감시책들이 시행되어 자동차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대기오염준위는 호전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1980년대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대기오염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에너지소비량 증가와 자동차수의 증가야말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들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문제는 이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기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국가들이 배출하는 아황산가스의 양이 연간 약 2천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며 관계국가간의 협력을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측 및 민간차원에서 줄기차게 제안하여 왔습니다. 그 중 민간차원의 첫 시도는 1898년 지구환경에 관한 도쿄회의에서 이루

어졌으며 두번째와 세번째 시도는 1991년에 서울에서 열린 IUAPPA 지역회의와 1992년의 서울환경심포지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진정한 환경협력을 위한 첫걸음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고위급 대표단을 통한 한국정부측의 공식적인 노력은 1989년에 개최된 제15차 UNEP이사회와 1992년에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질오염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중국의 주요 수질오염원은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산업폐수이며 대부분의 산업폐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강이나 호수,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질도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양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상수원이 경우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재활용과 각종 규제로 수질오염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 많은 국가의 호수와 폐쇄된 수역이 영양염류 축적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부영양화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육상으로부터의 폐수유입과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하여 바닷물도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요 해양오염원은 유기물질, 영양염류, 중금속 그리고 유류입니다. 더하여 빈번한 유조선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해양환경이 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양오염문제에 있어서도 대기오염과 마찬가지로 지역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습니까.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지역협력체제는 몇개의 국가가 해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서 꼭 필요하며 가장 우선되어야할 협력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이 지역내 관련국가들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념적, 정치적 격차를 초월한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지역환경협력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협력의 사례는 이미 세계의 몇몇지역에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지역의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중해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군사적 적대국들끼리도 서로 마주 앉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황해(Yellow

Sea)의 자연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바 지역 내 관계국가간 협력활동이 시급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환경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개발기간의 소요 및 막대한 초기투자재원의 소요규모등 환경기술개발의 특성상 지역내 환경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환경기술개발은 선진경제권에서도 국제협력과 분업에 의한 기술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환을 위한 지역내 국가간의 여러 측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을 통한 환경기술관련 지역능력배양은 이 지역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는 자국의 환경기술 도입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만 환경기술의 이전국과 수혜국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국가간 이전문제는 의제21의 제34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한 기술의 이전이 아닌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기존기술수준과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그 나라의 광범위한 환경기술개발 내부능력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 그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기술의 의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휴먼웨어(Humanware) 즉 인적자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환경기술의 이전 및 확산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훈련된 인적자원 없이는 기술이 지니고 있는 효용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을 주고 받는 국가간에 일관된 정책과 계속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역환경협력은 지역내의 국민들간에 국경이 없는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체적 의식”을 가져야만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 아래 활발한 정보의 교류, 공동연구 및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ESSD(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탱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내 모든 개인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역내 모든 나라의 국민개인의 실천이 없을 경우 몇몇 전문가들과 정부의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일반대중의 실천을 이끌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여기 모이신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경이라는 장벽을 넘어선 지역내 일반대중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지도급의 노력이 커다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지역의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이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환경의 질을 잘 지키기 위한 새로운 “환경시민행동양식(Environmental Citizenship)”을 구축하기 위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없는 환경친화적인 문화적 전통을 지닌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존중해온 환경윤리와 생활양식도 특이 합니다. 이러한 환경친화적 문화를 다시 부흥·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실된 노력이 명분한 변화를 창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여러난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위에서 살게될 우리들의 후손들앞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서울에서의 이번 회의가 여러분 모두에게 뜻깊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 연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7일 대한민국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태평양 환경의원회의 개막식에서 발표한 주제 "Importance of Regional Cooperation based on ESSD in East-Asia and Pacific"의 번역문입니다. 국민 홍보에 참고가 될것 같아 보내드립니다.